

“탄소중립시범도시 지정...기후위기 발빠른 대처를”

광주 환경단체 지역 현안 5개 선정

광주지역 환경시민단체들이 지역 환경 현안 5개를 선정했다.

이번에 뽑힌 5대 현안으로는 ▲탄소중립시범도시 광주 지정 ▲국가하천 광주천, 양동복개구간 복원 ▲영산강 수질과 생태적 건강성 회복 ▲광주공항 이전 후 현 부지에 용복합도시 개발 ▲중앙공원과 전남일신방직 이전부지 도시공원지정 등이다.

20일 광주환경연합 등에 따르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대선정책발굴위원회를 구성해 생태도시 광주에 필요한 '광주 지역 5대 환경 현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굴된 5가지 현안은 지역 환경단체들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특히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진보당 등 대선후보 등에게 전달해 국정과제 및 지역 현안으로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양동복개 복원·광주공항 이전 후 현 부지 용복합도시 개발 등 2045 에너지자립도시 실현 위해 국가 차원 지정·지원 필요

이번 현안선정은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환경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광주지역이 선제적으로 탄소중립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2050년 국가 탄소중립보다 5년 빠른 2045년 광주 탄소중립 성공이 중요한 과제라는 것이다.

먼저 광주의 2045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국가 탄소중립진흥원(가칭) 설치와 제로에너지 건축시범사업 지역으로 광주를 선정하는 등 국가차원의 지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시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광주천 양동 복개구간의 복원 필요성도 현안으로 삼았다.

또 영산강 수질과 생태적 건강성의 회복도 광주 지역 환경 현안으로 들어갔다. 구체적으로는 시설부지 면적이 44만 6000㎡(약 13만5000평)에 이르는 광주하수처리장 상부 구역을 지하화해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경우, 도시경관 향상을 물론 도시 열섬현상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국가하천인 광주천 수량의 70%이상인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수질개선 필요성도 담았다.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군공항조성 시 매립된 하천부지를 광주시가 무상양여받아 영산강과 황룡강 합류지점의 배후습지와 곡류하천을 복원시키고, 저밀도 친환경 '산업·주거·휴식 융복합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을 위해 민간공원 조성 이후, 280만㎡에 달하는 중앙공원이 도시의 녹지축이자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국가 도시공원 지정 등 도시공원관리체계를 정부에서 마련하고 민·관이 모두 참여하는 공원거버넌스가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5대 광주지역 환경현안은 대선후보들의 선거캠프에 전달돼 대선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 나간다는 게 광주환경연합의 계획이다.

이경희 광주환경연합 사무처장은 "이번 광주환경현안 지정은 광주 지역발전을 넘어 전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한빛원전의 고준위폐기물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국단위의 현안으로 삼고 연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교육청 자치법규 제·개정 의원 발의 등 72건

광주교육청이 올해 총 72건의 자치법규에 대한 제·개정을 완료했다.

제·개정된 자치법규는 의원 발의 40건, 교육감 발의 32건이다.

세부적으로 학교 입학 준비 지원 조례 등 교육 지원 분야 25건, 안전관리 분야 10건,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18건, 그 밖에 내부 조직 및 인사관리 등 자치법규 정비 19건이다.

시 교육청은 학교 교육력 제고 및 학생복지 증진을 위해 자치법규 제·개정이 필요한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 등을 적기에 반영해 자치법규 미정비로 인한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소관 조례를 포함한 자치법규를 지속해서 점검해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교육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



이웃에게 전할 밀반찬 20일 오전 광주시 북구 임동 적십자 광주 봉사관에서 농성2동·상무1동 캠프지기 회원들이 김장김치, 멸치볶음 등 취약계층 200세대에 보낼 사랑의 밀반찬을 만들고 있다. 이번 밀반찬 봉사에 사용된 김장김치 300kg은 양동시장 하남반찬에서 후원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혼자서도 편하게 식사하세요”

광주 동구 24일까지 '혼밥 식당' 모집...인센티브 제공

광주시 동구가 24일까지 '동구 혼밥식당'을 모집한다.

20일 동구에 따르면 지역내 혼자서도 식사하기 좋은 여건을 갖춘 식당인 '혼밥식당'을 모집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번 혼밥식당 모집은 급증하는 1인 가구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위해 혼자서도 집밥처럼 편안한 식사가 가능한 식당을 지역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마련했다.

응모 가능한 식당은 가정식 백반 등 건강한 집밥 메뉴를 제공하고, 1·2인용 테이블 및 좌석이 확보된 동구 소재 식당이다.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동구·동구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구 혼밥식당으로 지정되면 지정 스티커 부착과 함께 동구청 누리집 및 SNS를 통한 홍보, 테이블 세팅지·수저집 제공, 자동이수시게 디스펜서, 칸막이 설치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



가 제공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동구는 1인 가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절반 수준을 차지하면서 혼밥, 배달음식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지역"이라며 "1인 가구에 대한 건강한 식생활 지원 등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해나 가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초음파로 치매 치료한다...지스트 연구진 성공

광주과학기술원(지스트) 연구진이 초음파를 이용한 뇌 자극으로 치매 유발 원인물질 줄이는 데 성공했다.

20일 지스트에 따르면 의생명공학과 김태 교수와 김재관 교수 공동연구팀이 초음파를 이용한 뇌 자극으로 알츠하이머병 생쥐 모델인 '5xFAD'에서 아밀로이드 베타 플라크(단백질 응집)를 줄이

고 뇌 연결성이 개선됐음을 확인했다. 알츠하이머병은 아밀로이드 베타 플라크와 타우 단백질이 뇌 안에 축적돼 신경 퇴행 및 인지기능 저하를 유발하는 질환으로, 치매의 60~70%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공동연구팀은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초음파를 이용해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인 아

밀로이드 베타 플라크의 양을 감소시키는 데 성공해 임상 활용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 교수와 김재관 교수는 "초음파를 이용해 '비약물적', 세균과 같은 미생물이나 검사용 장비의 일부 파위가 체내 조직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비침습적'으로 아밀로이드 베타 플라크를 감소시키는 방법은 비교적 안전하고 부작용의 우려가 적다"며 "알츠하이머 환자에서 효능이 확인되면 이른 시일 내에 임상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김종욱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취임

20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제15대 청장인 김종욱(사진) 치안감이 취임했다.

김 청장은 경남 거제 출신으로 거제제일고를 졸업했으며, 경상대 법학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김 청장은 1989년 순경으로 해양경찰에 입문해 울산해양경찰청장,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장, 해양경찰교육원장, 해양경찰청 수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종욱 청장은 이날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는 안전을 위해 신속하게 행동하고 즉시에 도착한



다라는 구호를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며 "서·남해는 많은 섬과 넓은 해안, 황금어장을 비롯해 배타적 경제수역과 한·중 잠정조치수역이 있는 요충지라는 점에서 책임과 의무가 막중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임식을 가진 전임 이명준 청장은 해양경찰청 경비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시민 행복시대를 열어나가는 선진의의회

정읍시의회 www.jcc.or.kr